5) 인문·사회과학 분야 논문의 양식

(1) 인용문의 출처 표시 양식

논문의 서술 과정에서 본문에 인용한 자료에는 그 때마다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 비록 적절한 관례에 따른 인용이라 할지라도 인용문이 본래 속해 있던 문헌이나 자료명, 면 수 등을 일정한 형식으로 밝혀야 한다. 인용한 문헌의 출처 표시 방법에는 크게 필자 연도 체계(author-date system)와 번호 체계(number system)의 두 가지가 있다.

필자 연도 체계는 보통 1993년에 간행한 시카고 양식 메뉴얼(*The Chicago Manual of Style,* U.C.P.)의 체계를 따르는데, 논문의 뒤쪽에 따로 마련되어 있는 참고 문헌 목록을 바탕으로 참조, 인용한 문헌이나 기타 자료의 출처를 간편하게 표시하는 방법이다. 이 체계를 쓰기 위해서는 참고 문헌 목록을 반드시 마련하고 있어야 한다.

필자 연도 체계를 이루는 기본 요소는 필자명과 간행 연도이다. 이 때의 필자명은 저자는 물론, 편자, 편집자, 번역자 등을 두루 가리키는데, 한국의 필자명은 '주시경'처럼 성과 이름을 함께 표시하고, 서양인의 이름은 참고 문헌 목록에는 "Eliot, T. S."와 같이 표시되더라도 성인 "Eliot"만을 적는다. 시카고 양식 메뉴얼 체계에서는 종전의 필자 연도 체계와는 달리 필자명과 간행 연도 사이에는 쉼표를 찍지 않으며, 간행 연도 뒤에 쉼표를 찍고 페이지 수를 표시한다.

<필자 연도 체계(U.C.P.)>

"……(인용문을 나타냄 : 이하 같음)……(김민수 1974)."
"……(Eliot 1920)."
"……(주시경 1910, 22-33)."
"……(남기심, 고영근 1983)."
"……(Smith, Carter, and Jacobson 1981)."

한편 번호 체계는 인용한 내용의 끝에 번호를 붙이고 주석의 형식으로 자료의 출처를 밝히는 방법이다. 이 때에는 저서의 경우 '저자명, 서명, 편역자명, 발행지, 출판사, 발행 연도, 페이지'의 순으로, 논문의 경우는 '집필자명, 논문 제목, 게재지명, 권 호수, 발행처, 발행월, 페이지' 순으로 나열한다.

한 논문에서 동일한 저서나 논문을 반복하여 인용할 경우에는 두번째 인용부터서는 기입상의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첫 번째 인용 시에 기입했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들을 생략하거나, '上同', '前揭書', '같은 책', '앞에 든 책'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간략히 나타낸다. 이 경우 구미의 논문에서는 라틴어 약호인 'Ibid. , op. cit., Loc. cit. 등'을 사용한다.

참고로 Ibid.는 바로 앞의 주에서 다룬 저술을 가리키는데 페이지가 다르면 Ibid. p. 127처럼 이를 명기하며, 중간에 다른 저술이 끼어 있는 경우는 사용하지 못한다. op. cit.는 중간에 다른 저술이 끼어 있어서 Ibid.를 사용할 수 없을 때에 쓴다. 반드시 N. Chomsky, op. cit., p. 47처럼 저자명과 페이지를 함께 표시한다. Loc. cit.는 같은 책의 같은 글을 표시할 때 쓰므로, 페이지를 명기하지 않는다. 중간에 다른 저술이 끼어 있으면, N. Chomsky, Loc. cit. 처럼 저자명과 함께 쓴다.

<번호 체계>

"……"1)
"……"2)

주석 란에, 1) 조연현, 「한국현대문학사」, (서울 : 현대문학사, 1961), p. 120.
2) 박준규, "고산의 한시 연구", 「고산연구」, 제3호(고산연구회, 1989), p.25.

⑶ 주석 양식

주석은 기능에 따라 크게 내용 주석과 문헌 주석으로 나뉜다. 이 중 내용 주석은 본문 중의 특정 사항에 대하여 따로 설명하거나 보충하여야 할 사실, 추가하여야 할 방증, 독자에게 상기시키고 싶은 사실 따위를 덧붙이는 데에 쓰인다. 반면 문헌 주석은 인용한 문헌의 출처를 밝히는 것이다.

주석은 놓이는 위치에 따라서는 脚註, 尾註 혹은 後註, 間註 따위로 나눈다. 각주는 본문의 아래쪽 여백에 줄을 긋고 작은 글씨로 나타내는 주석이며 대표적인 방식이다. 미주는 본문의 한 장이나 맨 뒤쪽에 주석을 모아 두는 방식이고, 간주는 본문 중에 자리를 만들어 끼워 넣는 방식이다. 이 세 방식은 위치만 다를 뿐 작성 양식은 동일하다.

⑷ 참고 문헌 목록 양식

참고 문헌은 국내외 여러 다른 언어로 된 자료인 경우가 많다. 이 때는 우선 언어별로 분류하고 각기 따로 나열한다. 가령 국어, 일어, 영어의 3 가지 언어로 된 참고 문헌이 있다면 국어 문헌을 일정한 순서로 나열한 다음, 일어, 영어 문헌 순으로 나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각 언어별로 문헌 자료 목록을 나열할 때에는 일차적으로 필자명의 철자 순을 기준으로 삼는 방식이 가장 널리 쓰인다. 이를테면 국어 문헌의 필자명은 가나다 순, 일어 문헌은 가나 문자 순, 영어 문헌은 알파벳 순에 따라 배열한다.

필자명은 국어 문헌의 경우 책의 표제지에 나타나 있는 이름을 그대로 쓰는 것이 원칙이다. 곧 “성 + 이름”의 형식으로 나타낸다. 성만 표시한다든지 이름만 표시해도 안되며, 박사, 선생, 교수 따위의 칭호도 필요 없다. 서양식 이름일 때는 원전의 표제지에 있는 것과는 다르게 표시한다. 원전의 표제지에는 대개 Michael David처럼 이름이 성 앞에 놓인다. 그러나 참고 문헌 목록에는 David, Michael과 같이 성을 먼저 쓰고 쉼표(,)한 다음에 이름을 적는다. Dana Carleton Munro와 같이 중간 이름이 있는 경우도 Munro, Dana Carleton처럼 적는다.

<참고 문헌 목록 예>

국어정보학회(1996), 세계로 한글로, 시나리오 타자본.

김상태(1982), <문체의 이론과 방법>, 서울 : 새문사.

_____(1985), <참말과 거짓말 사이>, 서울 : 대방출판사.

문화방송(1996), MBC 멀티드라마, 서울 : 서울시스템주식회사, 씨디 롬.

이익섭.임홍빈(1983), <국어문법론>, 서울 : 학연사.

홍순탁(1974), 이두 연구. 박사학위 논문. 동국대학교

梅田博之(1982), 朝鮮語の指示語. <講座日本語學> 12, 東京 : 明治書院

Cruse, D. A.(1982), On Lexical Ambiguity, *Nottingham Linguistics Circular* 11.2, 65-80.

Palmer, F. R.(1981), *Semantics(2nd),*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